

## 부 고

마리아 플로리다 MARIA FLORIDA 수녀

ND 6867

마르티나 스리 마르다틴 Martina Sri MARDATIN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착한 의견의 어머니 관구

출 생: 1956년 11월 11일 인도네시아 그로보간 케둥자티  
서 원: 1984년 7월 1일 인도네시아 페칼롱간  
사 망: 2021년 5월 7일 인도네시아 램방  
장 례: 2021년 5월 27일 인도네시아 페칼롱간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루카 1, 38)

스리 마르다틴은 위로소에다르모와 마르키나의 네째 아이로 태어났다. 부모는 다섯 아들과 네 딸을 두었다. 스리 마르다틴은 1979년 4월 14일에 욕야카르타의 스텔라 두체 성당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마르티나라는 세례명을 받았다. 견진 성사는 1979년 4월 14일에, 코타바루 욕야카르타의 스텔라 두체 성당에서 유스티누스 다르모부워노 추기경을 통해 이루어졌다.

노틀담 수녀가 되고자 하는 마르티나 스리 마르다틴의 소망은 1981년 8월 19일에 이루어졌다. 페칼롱간에서 우리 수녀회의 청원자로 받아들여졌으며 1982년 6월 21일에 착복하면서 마리아 플로리다 수녀가 되었다.

마리아 플로리다 수녀는 초기 양성기에 수도 생활을 살아가고자 하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유기서원기에는 교육 분야에서 사도직을 했다. 수녀는 성숙하고 좋은 수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1991년 6월 23일에 수녀회의 이태리 로마 모원에서 종신 서원을 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마리아 플로리다 수녀는 함께 생활하기에 즐거운 공동체 일원이었다. 어머니답고 단순하면서도 규율이 있었고 책임감있고 겸손한 성품이었다. 사도직에서는 좋으신 하느님의 섭리적인 돌보심을 믿었으며 성모님은 수녀의 모범이요 지원자였다.

수녀에게는 다양한 사도직이 주어졌다. 푸르발링가의 성 비오 초등학교 교장, 청원자, 수련자 지도 수녀, 욕야카르타의 센당 아시 공동체 분원 책임자, 라셈에 위치한 마르가닝시 고아원 책임자 역할 등이었는데, 좋으신 주님께서는 이곳에서 수녀를 당신의 충실한 여종으로 여기시고 하늘에 있는 당신의 나라로 불러가셨다.

2021년 5월 21일, PCR 검사를 통해 코비트 감염을 진단받았다. 마르가닝시 소년의 집에서 격리에 들어갔다. 수녀는 가슴 압박을 겪으며 램방의 수트라스노 박사 병원에 입원했고 코비트 격리 병실에 머물렀다. 폐렴 판정을 받았다. 5월 26일, 호흡이 점점 악화되었다. 거의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의료진들은 수녀의 호흡을 용이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2021년 5월 27일, 하늘에 계신 좋으신 아버지께서는 마리아 플로리다 수녀의 고통을 끝내시고 수녀가 언제나 사랑하던 예수님과 성모님과 함께 복되고 평화로운 영원한 생명을 마련해 두신 고향으로 불러가셨다.

사랑하는 마리아 플로리다 수녀님, 이제 수녀님이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언제나 수녀님을 기억하겠습니다.